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6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여성주간(女性週間)을 아시나요?

인터뷰 :

여성정책과 김유경팀장과의 만남



I/D/I/소/식

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항금벨트 구상
2008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송도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항금벨트 구상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송도갯벌 타
워 2층 국제...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제13차 도심재창조 토
론회(6/5) : 대구경북연
구원(053-770-...

Zoom INcheon



인천 역사 - 6월

*1901년 6월 22일제
물포클럽 정식 발족 -
제물포구락부는
189...

도시동향



코펜하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코펜하겐
(Copenhagen)은 덴마
크의 수도이면서 셸란
섬 북동해안에 ...

IDI연구



탐상형 공동주택 단지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인천광역시시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
하는 주택정책의 하나
로 탐상형 ...

인천지표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인구	2,810,000	2,820,000	2,830,000	2,840,000	2,850,000	2,860,000	2,870,000	2,880,000	2,890,000	2,900,000	2,910,000	2,920,000	2,930,000	2,940,000
면적	면적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인구	인구	2,810,000	2,820,000	2,830,000	2,840,000	2,850,000	2,860,000	2,870,000	2,880,000	2,890,000	2,900,000	2,910,000	2,920,000	2,930,000	2,940,000
면적	면적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인구	인구	2,810,000	2,820,000	2,830,000	2,840,000	2,850,000	2,860,000	2,870,000	2,880,000	2,890,000	2,900,000	2,910,000	2,920,000	2,930,000	2,940,000
면적	면적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인구	인구	2,810,000	2,820,000	2,830,000	2,840,000	2,850,000	2,860,000	2,870,000	2,880,000	2,890,000	2,900,000	2,910,000	2,920,000	2,930,000	2,940,000
면적	면적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인구	인구	2,810,000	2,820,000	2,830,000	2,840,000	2,850,000	2,860,000	2,870,000	2,880,000	2,890,000	2,900,000	2,910,000	2,920,000	2,930,000	2,940,000
면적	면적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인천시 일과 가족의
양립 지표
일/가족 양립은 여성
과 남성이 시장노동과
돌봄 노동을 함께 수
행하고 일...

여성주일을 아시나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정했다. '14조 (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26조에는 '여성주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가 되는 여성주간은 정부에 의해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부장제 의식이 팽배하고 성차별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현실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여성주일을 제정한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근로자의 날, 향토예비군의 날, 경찰의 날, 농업인의 날 등 무수히 많은 날들이 있는데 여성의 날은 당일 하루보다 더 긴 여성주일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13회째를 맞은 여성주일을 국민들은, 시민들은, 여성들은 알고 있을까?

여성주일은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과에서 여성단체와 여성인사들을 모셔 놓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몇 년 전 어떤 연구자가 여성주일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한 결과 거의 대부분 시민들은 여성주일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한 명만 여성주일을 안다고 하여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왜 여성주일을 몰라 20-30년 전에 선데이 서울과 함께 잘 나가던 잡지가 여성주일이었는데..."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한다. 웃음을 금치 못하는 에피소드이다. 물론 인천시는 2003년부터 여성주간 행사의 문호를 개방하여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와 진보적 여성단체(YWCA,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가 공동 주최로 격년제로 여성대회를 하고 격년은 인천시 주관으로 기념식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범여성단체들이 함께하는 여성주간 기념 여성대회는 다양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공연물을 준비하여 발표하고 단체 부스도 운영하며, 열심히 활동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도 하는 등 축제의 장이 되어 왔다.

어쨌든 여성주일은 공무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만 알고 기념하여 행사를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 여성주간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언론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일반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인 것은 상당히 알려져 있으므로 3.8 세계 여성의 날과 여성주일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여성주간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려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주일을 대중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2007년 여성가족부 통계 발표에 의하면 남녀평등 지수는 157개국 중 26위이고 여성권한 지수는 93개국 중 64위이다. 여성권한 척도는 의회 여성점유율,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소득 비율 등 4개 영역에서의 여성진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전에 비해 성평등 정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성에게 정치,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 비교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여성권한 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고위직 공무원 여성에게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해 과거 차별의 누적된 결과를 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지수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가정, 직장,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의식이 남아 있고 성차별 현실이 엄존하고 있다. 출생 성비가 107.7로 여아가 2005년에 16천명 적게 태어났으며,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6년에 50.3%로 경제활동인구 여성 50%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약 63.4%로 직장 내에서 임금 격차는 여전하며 2005년 공적연금 가입자의 여성비율은 35.6%로 여성의 노후 보장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확대 및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더불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의 성차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을 차별해 온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아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정했다. ‘14조 (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6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여성정책과 김유경팀장과과의 만남

여성주간의 의미와 역사

각 시도에서는 매년 7월첫째주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남녀평등 의식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주간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주간의 주체인 여성들도 미처 여성주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주간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여성주간이란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주간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정됐으며, 1996년 7월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한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알맞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2008년 올해로 13살을 맞이하는 여성주간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라는 주제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주간 기념식을 통해 남녀평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남녀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여성주간

금년에는 여성주간 행사를 다채롭고 특색있게 개최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기념행사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의 기념행사가 선정되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UCC공모전”, “테마벽화 그리기”, “성역할에 대한 그림자극”, “달밤 영화제”, “생활공예제작”, “성과 나이를 초월한 합창제”, “특별강연”, “여성의제로토크” 등의 총 11개의 행사가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도 ‘전시회를 통한 양성평등의식고취 및 달빛시위’라는 이름으로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펼쳐질 예정인 기념행사는 남치, 아동성폭력, 성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행위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성폭력관련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며 그 의미가 있으며, 밤길에 대한 통제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통제수단으로 작용해 오고 있기에 “달빛시위”를 통해 여성들의 밤길을 되찾고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중 어려웠던 점

여성주간은 특정 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가 아닌 여성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첫단계인 여성주간에 대한 홍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성주간’이라 그런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행사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주간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성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여성의 권익과 남녀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하나의 캠페인임과 동시에 기존의 딱딱한 캠페인의 의미보다는 모두가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의식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전반의 우호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라는 주제 하에 제13회 여성주간을 맞이함을 270만 시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양극화 해소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여성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여성이야말로 새로운 21세기 '신 성장동력'으로서 경제발전의 핵심 자원이 되리라 생각하며, 우리시의 여성정책도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다같이 동참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양극화 해소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여성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여성이야말로 새로운 21세기 '신 성장동력'으로서 경제발전의 핵심 자원이 되리라 생각하며,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6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2008년도 공무원 성인지역 향상교육 실시

2008년 6월 10일~13일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는 6월 10일~13일, 4일간 성인지역 향상 및 성별영향평가 실무과정에 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 여성의제토론회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오후3시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오후3시부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는 "2010년 성인지 예산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08년도 여성의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진 해외사례 소개를 통한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방법, 성인지 예산 실행방안, 부처간 조율 등 성인지 예산 추진의 문제점,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 인프라 구축 방안등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 예산이 갖는 함의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황금벨트 구상

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황금벨트 구상

2008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송도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송도갯벌 타워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6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 * 제13차 도심재창조 토론회(6/5) : 대구경북연구원(053-770-5002)
- * 전북 핵심성장동력산업을 선도하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방안(6/12)
: 전북발전연구원(063-286-9235)
- * 규제개혁토론회 - 규제완화가 살길이다 ;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 경기개발연구원(031-250-3555)
- * 전남의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6/20) : 전남발전연구원(062-230-9127)
- * 제2회 도시에너지포럼 - 고유가, 우리경제는 안전한가(6/2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02-2149-1073)
- * 제131차 대경콜로키움(6/24) : 대구경북연구원(053-770-5002)
- * 전국시도발전연구원장 초청 콜로키움(6/24) : 전북발전연구원(063-286-9244)
- * 2008인천오페라 페스티벌(6/20~29)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032-427-8401~5)
- *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6/26) : 경기개발연구원(031-250-3555)
- * [TANGO 프로젝트 제3차 세미나]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사회통합
(6/27)
: 대구여성네트워크(053-770-5125)

인천 역사 - 6월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6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 1901년 6월 22일 제물포클럽 정식 발족

– 제물포구락부는 1891년 8월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사교클럽으로 처음 조직되었지만 회원자격의 기준이 엄격하고 입회수속이 몹시 까다로웠던 까닭에 점차 서양인들만의 구락부로 변화했다. 1901년 제물포구락부는 개관식을 거행하였으며 제물포구락부 건물에는 당구장, 독서실, 테니스장 등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14년 각국 조계가 철폐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 1902년 6월 12일 선교사 아펜젤러 목포로 가던중 기선침몰로 순교

★ 1904년 6월 17일 최초의 하와이 이민 120명 인천항 출발

★ 1911년 6월11일 인천축항 기공식

★ 1924년 6월 6일 인천-상해간 항로 개설

★ 1949년 6월 4일 월미조탕 해방후 첫 개장

– 1920년대 월미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유일한 조탕이 월미도에 만들어졌다. 조탕은 지하 암반층에서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를 끓여 목욕물로 사용하는 목욕탕으로 해수탕이라고도 한다. 1924년 월미도유원주식회사 인수이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조탕은 광복 후 일본자본이 철수하면서 영업을 중단됐다가 1949년 월미도관광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재개장되었다.

★ 1954년 6월 14일 제9회 전국고교야구 인천 고교팀 우승

★ 1961년 6월 6일 천주교 인천교구 설정

– 인천교구는 1961년 서울대 목구에서 경기도 관내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일부,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지역(9개 본당:답동, 연평도, 김포, 부평, 송림동, 강화, 백령도, 도화동, 선린동 등)의 신자23,169명을 관할하고 사목하는 대목구로 분리하였다.

★ 1969년 6월 28일 경인선 복선 완전 개통

★ 1979년 6월 18일 인천상수도 팔당서 급수 개시

★ 1989년 6월 15일 한중 정기직항 컨테이너선 첫취항

★ 1990년 6월15일 수도권 신공항 영종도로 확정

★ 1990년 6월 28일 건설부 송도신도시 1단계 535만평 매립승인

★ 1999년 6월 12일 바다살리기운동 인천본부 발족

★ 1999년 6월 15일 서해연평도근해 남북교전 북함정 격침

**** 위의 내용은 인천일보사발행 [인천연감] 인천사연표에서 부분발췌 수록한 것임.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6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코펜하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도시계획·교통연구실 석종수 연구위원

코펜하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면 특히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매우 우수한 국가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들은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성에 맞게 이들 국가들은 교통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장애인, 유모차, 노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많은 물리적인 시설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시설과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배우고 참고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코펜하겐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존(Zone)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존 요금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할인 요금(Discount cards)과 기간 요금(Period ticket)을 채택하고 있다.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통합 요금 체계(Integrated fare system)인 것이다. 코펜하겐 시내 통행을 위한 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S-tog(commuter trains)와 버스, 매토로(지하철)이며, 이중 7개 노선의 S-tog가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어 코펜하겐 전역으로 뻗어 있고, 그 사이를 버스가 채우는 방식이다. 이 S-tog는 코펜하겐 중앙역을 중심으로 광역 코펜하겐이 시작되는 접경까지 연결하는 근교 철도망이다. 매토로는 2개 노선에 불과하지만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버스는 일반버스와 A-bus, S-bus, E-bus, P-bus, Tele-bus, Service bus, Nat bus, Havne bus의 총 9가지 종류가 있으며, A-bus는 주중에 3~5분 간격으로 코펜하겐 도심지역에서만 운영하고, S-bus는 A-bus에 비해 적은 수의 정류장 정차하는 직행버스다. 또한 Havne bus는 일반버스처럼 도시지역을 배로 연결해 주는 버스로 코펜하겐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에 따른 다양한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코펜하겐의 철도는 Local railways, Regional trains(RE), Oresund trains의 3종류가 있으며, Local railways는 광역 코펜하겐의 외곽 지역을 연결하고, Regional trains(RE)은 코펜하겐과 덴마크의 나머지 지역 및 공항을 연결한다. 그리고 Oresund trains은 코펜하겐과 스웨덴의 Malmö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S-Tog

코펜하겐의 시내교통수단, 7개의 노선의 S-Tog는 코펜하겐 중앙역을 중심으로 광역 코펜하겐이 시작되는 접경까지 연결하는 근교 철도망



1, 2. 코펜하겐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코펜하겐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는 S-Tog에는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3.4.5. 객차 출입구와 승강장의 높이는 단차가 거의 없어 유모차, 휠체어는 물론 자전거까지 쉽게 S-To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내 비상연락용 전화와 티켓 확인기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6. S-Tog에는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등이 탑승할 수 있는 칸과 그렇지 못한 칸이 구분되어 있다.

Metro



7

7. 최신 설비를 자랑하는 메트로는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을 알리는 표지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설치하였다. 또한 역 입구에서부터 S 객차 출입문까지 점자 유도판이 설치되어 시각 장애인들도 열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객차에는 휠체어 고정 장치뿐 아니라 시각장애자 유도선을 위한 공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모든 객차의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역사 내에 설치된 티켓 확인기와 비상연락용 전화는 높이를 1,200mm 정도로 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8

8. 외부에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유모차, 휠체어 뿐 아니라 자전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적색 안내표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로 층별 안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Bus



코펜하겐의 모든 버스는 경사로가 설치된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와 같은 교통약자는 뒷문을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앞문을 이용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승차차로 인한 일반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있는 등 매우 세심한 것까지 고려한 이동편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노약자나 아이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등이 도시 내 주요 지역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8개의 Service Line을 따로 운용하고 있으며, Handicap Service라는 명칭의 door-to-door STS(특별교통수단)를 따로 제공하고 있다.



9. 코펜하겐의 버스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문과 유모차, 휠체어가 이용하는 문이 서로 다르다. 왼쪽부터 유모차가 이용할 수 있는 문, 일반인이 이용하는 문, 유모차, 휠체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행환경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도는 폭과 길이가 넓은 보도블록을 이용하여 블록 간 이음새가 거의 없도록 하여 휠체어, 유모차가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도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도블록 사이에는 진행 방향으로 한 줄로 작은 돌 블록을 설치하여 점자유도판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차도 부근에는 돌 블록을 2줄이나 3줄로 설치하여 경계부분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부근이나 주요교통시설 접

근로에는 반드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턱 낮춤 수준이 매우 양호하여 급경사가 없도록 시공하였다. 또한 신호기에는 음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돕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호기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였다. 보도의 폭은 기존에 돌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던 보도도 넓은 보도블록으로 재포장하여 휠체어와 유모차가 통행하기 편하도록 하였다. 휠체어 통행을 위한 최소 폭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횡단을 위한 입체시설인 지하도나 육교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두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는 보행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존에 돌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던 보도도 넓은 보도블록으로 재포장하여 휠체어와 유모차가 통행하기 편하도록 하였다.



10. 기존에 돌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던 보도도 넓은 보도블록으로 재포장하여 휠체어와 유모차가 통행하기 편하도록 하였다.

시내 중심가에는 보행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존에 돌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던 보도도 넓은 보도블록으로 재포장하여 휠체어와 유모차가 통행하기 편하도록 하였다.

코펜하겐(Copenhagen)은 덴마크의 수도이면서 쉘란섬 북동해안에 위치한 무역항이다. 1445년 덴마크의 수도이자 왕실 거주지가 되었으며, 나폴레옹 시대에 영국 함대의 포격으로 받아 도시가 일부 파괴되고 1856년 성벽이 해체된 이후 도시의 시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코펜하겐의 도시 면적은 88 km²이며, 인구는 약 50만 명이다.

탐상형 공동주택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 목적

인천광역시시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주택정책의 하나로 탐상형 초고층 아파트를 권장해 오고 있다. 탐상형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 주거동이 좁고, 중앙 홀에 의해 단위주택이 배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7년 이후 탐상형 개념을 적용한 주거단지 허가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탐상형 초고층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탐상형 초고층 아파트의 영향

판상형에서 탐상형으로 아파트 형태의 변화는 주거동의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주거단지 설계의 변화, 나아가서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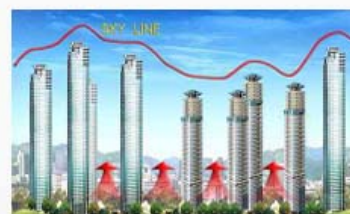
주거환경 측면에서 탐상형 아파트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는 단위 평면 구성의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반면에 탐상형 평면의 도입 결과 향과 일조, 소음, 정주성, 안전, 에너지 측면에서 판상형 보다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단지설계 측면에서 탐상형 초고층 아파트는 조망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탐상형 아파트는 진입공간과 커뮤니티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도시계획측면에서 탐상형 아파트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인식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도시경관 측면에서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에 탐상형 아파트는 고층 개발과 함께 주거지역 중상향 요구 증가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및 일조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 판상형 주거단지 예시



〈그림2〉 탐상형 주거단지 예시

심의기준 개선 등 대응방안

탐상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의 선별 등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옥상 및 옥탑부에 대해서 동일 주거단지라 하더라도 차별화된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설계 측면에서 개선사항은 주거단지 내부에 시각통로 또는 시각회랑(visual corridor)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주거동의 차폐 문제점을 완화하도록 한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탐상형 아파트를 도시 전체에 허용하기 보다 지역의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하도록 하고, 그 허용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도시경관 측면에서 탐상형 전부에 적용하던 인센티브 조항을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존 탐상형아파트 유도 정책 중 지나치게 완화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한다.

개발사업의 토지보상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의 양면성 문제-공공은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 절감, 민원문제 해소 등의 시도를 해야 하며, 토지소유주는 보상과정이나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적정 보상비를 받거나 지역 내 정착 및 경제성확보-를 해결하는 것이 토지보상의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이에 주민·민간·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제3섹터 개발방식의 도입이 요구되며, 개발지역내 건물 및 토지거래 시 개발이익의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여 토지보상비에 따른 토지주와야의 맞말이나 세입자의 문제, 사업의 지연, 사업비의 과다지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은 공공이나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시 일과 가족의 양립 지표

일/가족 양립은 여성과 남성이 시장노동과 돌봄 노동을 함께 수행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이루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성평등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정내에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을 맡아왔던 여성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봄, 특히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돌봄노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육시설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는 일/가족 양립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1)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인천시 아동 수는 15,407명이다. 전체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에서 맡고 있는 아동 수로 계산되는 보육분담율을 살펴보면, 2세 미만의 보육 분담율은 16.7%로 매우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1> 인천시 보육아동수 및 보육분담율 (단위 : 명, 2007. 10. 31 현재)

구분	합계	2세미만	2세	3~4세	5세
아동수	153,407	47,163	24,204	53,173	28,867
보육아동수	51,177	7,860	10,829	21,391	11,097
보육분담율	33.4	16.7	44.7	40.2	38.4

출처 : 2007년도 제2차 여성발전위원회 정기회 업무보고(2007),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수와 보육수요에 근거해서 산정한 보육수요충족률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의 표를 보면 인천시의 영유아 보육수요충족률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시별 보육수요 충족률 (단위 : 명, %)

	대상아동수 (만0-5세) A	보육시설 정원수 B	보육공급률 $C=(B/A)*100$	보육 수요율1) D	보육수요 아동수 $E=A*D$	보육수요 충족률 $F=(B/E)*100$
전체	2,999,461	1,221,006	40.7	39.4	1,181,788	103.3
서울	548,374	210,128	38.3	39.4	216,059	97.3
부산	178,785	74,992	41.9	39.4	70,441	106.5
경기	768,245	266,738	34.7	39.4	302,689	88.1
인천	165,852	52,967	31.9	39.4	65,345	81

출처 : 인천광역시 중장기보육계획(2006), 인천광역시., p18, 재인용.

* 1) 보육수요율은 현재 이용률과 현재 미이용자 중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용 희망율을 합한 개념. 보육수요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2004년 전국 12,000가구, 6,412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면접조사를 통해 보육 이용 및 수요 파악한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 것임.

(2)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수요 충족률도 낮은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립시설이 타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인천시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7%로 서울의 23.8%, 부산의 14.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시설 수의 경우에도 인천은 국공립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4.6%이다. 임. 이는 전국 평균 5.6%, 서울 11.5%, 부산의 8%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표 3>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구분설립주체별총계국공립 (단위 : 명, 개소)

구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총계	아동수	1,280,156	128,677	146,737	69,685	713,528	1,609	201,046	18,874
	시설수	29,233	1,643	1,475	1,066	12,864	59	11,828	298
서울	아동수	220,241	52,392	2,406	14,533	110,183	525	35,426	4,776
	시설수	5,508	632	28	2971	2315	16	2,142	78
부산	아동수	75,456	11,055	8,672	2,626	44,300	55	8,143	605
	시설수	1,592	127	93	44	842	2	471	13
대구	아동수	62,706	1,842	14,549	2,778	36,540	119	6,302	576
	시설수	1,239	24	121	37	684	5	356	12
경기	아동수	286,484	22,173	8,583	9,020	173,707	682	67,152	5,167
	시설수	7,864	293	100	131	3,311	27	3,933	69
인천	아동수	56,392	3,987	1,238	2,495	38,408	37	9,267	960
	시설수	1,385	65	9	45	654	1	588	23

출처: 2006년 보육통계(200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재구성

(3) 육아휴직 성별 이용현황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 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6년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13,672명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인천시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655명이다. 인구대비로 보았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 인천 시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육아휴직수혜자 중 남성비율은 인천시가 다른 시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겨우 2.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인천에서 15명의 남성만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했음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4> 시도별 육아휴직제도 이용자 수 현황(2006년)

구분	총	성별		성별비율
전국	13,672	남	230	1.7
		여	13,442	98.3
서울	4,636	남	79	1.7
		여	4,557	98.3
부산	902	남	11	1.2
		여	891	98.8
경기	3,533	남	56	1.6
		여	3,477	98.4
인천	655	남	15	2.3
		여	640	97.7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자료

일/가족 양립은 여성과 남성이 시장노동과 돌봄 노동을 함께 수행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이루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정내에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을 맡아왔던 여성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6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성평등 지표를 통해 본 인천여성의 현황

성평등 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는 성불평등을 가시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성인지 지표는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을 측정하여 불평등한 요소가 있을 때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자원 접근성, 사용권, 통제권, 비용과 수혜의 분배와 관련된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성평등 지표는 국제기구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국가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이다. 2007/2008 UNDP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률과 평균수명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남녀평등지수는 115개국 중 26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경제 활동과 정책결정 참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93개국 중 64위를 기록해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는 아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07/2008).

인천시 성평등 수준 또한 여성권한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여성남성 소득격차, 인천시 5급 공무원 여성비율, 여성전문기술직 비율, 인천시 국회의원 여성비율, 인천시 의회의원 여성비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경제활동참가율

시도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시도별(평균%)	성별	2008. 05
전국평균(62.8)	남자	74.4
	여자	51.1
서울특별시(62.9)	남자	74.5
	여자	51.3
인천광역시(62.2)	남자	75.7
	여자	48.6
경기도(63.3)	남자	76.2
	여자	50.4
부산광역시(58.6)	남자	69.1
	여자	48.0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2007), 통계청

전국평균 62.8%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녀를 분리하여 살펴 보았을 때 남성은 74.4%, 여성은 51.1%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8년 5월 현재) 살펴보면 48.6%로 서울의 51.3%, 경기도의 50.4%에 비해 낮은 편이다.

(2) 고위직 여성 비율

여성권한척도의 주요 지표가 되는 전문가, 고위직 직종의 여성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직종별 성별 취업자(2007.11.기준) 전국통계

취업자	명수	비율(%)
계	23,739	
여자	9,995	42.1
남자	13,744	57.9
의회의원, 고위임직 및 관리자	557	
여자	50	8.9

남자	506	91.1
전문가	2,094	
여자	986	47.0
남자	1,108	53.0
기술공 및 준전문가	2,649	
여자	959	36.0
남자	1,690	64.0
전문·기술·행정관리자	5,299	
여자	1,994	37.6
남자	3,305	62.4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출처 : 성인지통계 홈페이지(<http://gsis.kwdi.re.kr>)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여성이 8.9%로 매우 낮고,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기술·행정관리자의 경우에도 여성이 37.6%에 불과하다.

(3) 남녀임금비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 시 주요한 불평등 요소인 남녀임금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월평균 임금총액 및 여성 임금비(2006. 상반기 기준)

시도별	여자(원)	남자(원)	남여임금비(%)
서울특별시	1,706,978	2,603,299	65.6
부산광역시	1,256,005	1,948,027	64.5
인천광역시	1,329,807	2,099,981	63.3
경기도	1,416,944	2,225,935	63.7

* 주 : 남여임금비(%) = (여자임금/남자임금) X 100
 * 출처 : 지역성인지지역통계 홈페이지(<http://gsis.kwdi.re.kr>)

남녀임금의 격차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이 100의 월급을 받을 때 여성은 65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성공무원 비율

공공영역에서의 여성 진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7.7%로 나타난 반면, 5급 이상의 경우, 6.5%로 매우 낮다. 인천의 경우 이보다 높은 전체 공무원의 29.6%, 5급 이상 7.9%로 나타났다지만 이 또한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표4>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공무원 현황(2006. 12기준)

시도별	성별	전체(명)	여성비율(%)	5급 이상	여성비율(%)
계	계	272,584명	27.7	18,313명	6.5
	여자	75,608		1,199	
서울특별시	계	46,462	26.9	2,857	12.3
	여자	12,501		351	
인천광역시	계	12,100	29.6	926	7.9
	여자	3,587		73	
경기도	계	41,464	30.7	2,595	7.1
	여자	12,710		185	
부산광역시	계	16,033	30.4	1,151	7.2
	여자	4,876		83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5) 여성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인천시의 여성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의원 중 여성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인천시 여성국회의원 및 여성(광역, 기초)의원 현황

구분	4차 지역선거(2006) 전체(여성)									
	18대 국회의원		시도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		구시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명(여성)	여성 비율	명(여성)	여성 비율	명(여성)	여성 비율	명(여성)	여성 비율	명(여성)	여성 비율
전국	245(141)	57.7%	655(321)	49%	78(57)	73.0%	2,513(1101)	44%	375(327)	87.2%

인천	12(0)	0%	33(1)	3.0%	3(2)	66.7%	97(4)	4.1%	15(13)	86.7%
----	-------	----	-------	------	------	-------	-------	------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

올해 치러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시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의원은 1명, 구시의원은 4명으로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반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이 66.7%,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86.7%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참여는 직접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례대표 선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성평등지표를 선정하여 시도별로 순위를 매긴 바 있다. 세부지표로 남녀출생성비, 가사노동시간의 성별차이, 평등대우 인식의 성별차이, 평균교육연수의 성별차이,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차이,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차이, 임금의 성별차이, 기초생활수급률의 성별차이,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차이 등 9개 요소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인천은 16개시도 중 13위에 그쳤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성평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인천도 13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김양희 외(2006).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성평등 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는 성불평등을 가시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성인지 지표는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을 측정하여 불평등한 요소가 있을 때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자원 접근성, 사용권, 통제권, 비용과 수혜의 분배와 관련된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